

國際協力 增進과 自体 協同体制 확립

세계에너지會議 總會開催도
고려할 수 있는 自信感



鄭 根 諱

WEC-IEC 副議長
(亞洲大 碩座教授)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에너지會議 國際執行理事會의 主要 成果는 에너지 開發과 活動에 요구되는 국제협력의 역할을 再浮刻 시켰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번 會議는 韓國과 參加 會員國 및 國際機關들과의 協力關係를 공공히 하는데 寄與한 바 크고 에너지 問題에 關係 깊고 專門性이 內在된 接近方式이 重要하다는데 전반적인 合議를 조성시켰다고 생각된다.

특히, 理事會가 Fuel Cells, Energy Technologies and the Public, Oxygenated Transport Liquid Fuels: the Total System, Solar Power 등의 새로운 研究 委員會를 新設하고 현재 進行중인 바이오가스 生産과 應用, 其他 再生可能 에너지資源, 火力發電所 利用率 提高 및 低質 石炭 活用 研究事業에 대한 支援 確約은 技術開發을 위한 進一步의 成果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 研究委員會에 國內 專門家들의 寄與도 기대된다.

會議 主要 議決 事項中 WEC 組織改編이 있었으며이에 따른 定款을 改定하여 WEC는 이제 3個의 常任委員會를 갖게 되었다. 國家에너지 統計資料 작성 및 世界的 에너지資源 探查와 같은 WEC 基本 研究調查 事業을 수행하는 企劃委員會 (Programme Committee), 産業過程內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와 관련된 大氣 汚染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特定研究事業을 계획하고 이의 원활한 遂行을 圖謀하는 保存 및 研究委員會 (Conservation & Studies Committee), WEC 會員國 管理 및 財政, 企劃業務를 擔當하는 行政委員會 (Administrative Committee) 등으로 改編 構成되었다.

이번 WEC-IEC 회의 프로그램중의 하나로 개최된 한국에너지의 날에는 내외인사 500餘名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으며 에너지 공급의 다 양화와 에너지 自立을 意慾적으로 추구한 韓國 에너지 政策의 成功상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회 가 되었다. 특히, 에너지 分野別 現況發表 및 討議 Session에서 動力資源部 李鳳瑞 次官의 基調演說은 韓國의 에너지 政策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고 곧이어 개최된 에너지 關聯

展示會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各種 統計를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어서 에너지需給, 石炭, 石油, 가스, 電力, 에너지管理 등 韓國의 各 分野別 專門家들의 해당 分野別 發表는 國內外 參加者들이 우리나라 에너지界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날 오후 海外 著名人士 講演會에서는 韓鳳洙 에너지協議會 會長의 歡迎辭에 이어 WEC M. Boiteux 總裁의 人事를 시작으로 WEC/IEC의 K. Davis 企劃委員長, 불가리아의 N. Todoriev 에너지 長官, 말레이시아의 J. Zainuddin 電力廳長이 各各 “世界에너지의 現況과 展望”, “불가리아 에너지政策”, “말레이시아 에너지政策” 등에 관해 發表하여 參席者들이 世界 에너지 現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IEC會議後 海外參席者를 대상으로 3個코스 로 나누어 경주, 부여 觀光과 古里原子力發電所, 평택 LNG基地, 淸平揚水發電所 등을 둘러본 産業視察과 會議期間中の 同伴者行事, 리셉션, 만찬회 등은 짜임새 있게 행사가 進行되어 外國 參加者들로부터 호평을 받은것은 特記할만한것 이라 하겠다.

매년 開催되는 世界에너지會議 國際執行理事

會를 今年度 개최하게된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회의를 例年の 會議보다 좀더 내용있게 치루고 會議自体도 格上되도록 努力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各국으로부터 에너지 長官級 等 高位層 人士와 에너지專門家들이 다수 參加하였고, 특히 Korean Energy Day에서는 에너지分野別 冊子(7種)도 發刊하였으며 著名 外國人士들의 초청강연 및 展示會 개최를 통하여 內實있는 會議 가 되었고, 蘇聯, 中共 等 未修交國家(6個國 14名)와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 향상 에도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國內 에너지界와 一般人들에게 에너지分野의 國際協力の 重要성과 世界에너지會議(WEC)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고, 88올림픽과 우리나라의 觀光 弘報를 위하여서도 寄與한바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行事가 우리나라 에너지界의 國際協力 增進과 國際化 促進에 좋은 機會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에너지界 自体의 團結力과 協同體制가 시험되고 단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 에너지界도 今世紀末에는 WEC의 最大 行事인 世界에너지會議 總會 開催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